

“공기관, 생명·안전 외주화 안돼… 비정규직 연내 전환을”

김현미 국토부장관 공기업 간담회
2만8000명 정규직 전환 달성 '92%'
시민참여혁신단 '혁신 계획'도 수립



국토부는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도시·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

다"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

는 명분으로 외주화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2곳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잠정 전환 계획 인원 2만8000여명 중 2만6000여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 전환 결정 달성 비율이 92%에 달한다.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환 결정이 완료된 기관들은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협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기관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해 5년간 신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중조사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운영사별 상품	상품속성	좌석지정	주말사용	이용기간-이용횟수	비고
철도공사	현행정기권	X	X	10일~1개월	제도유지
	① 좌석지정형	O	X	10일~1개월	현행 정기권+좌석지정옵션
	② 기간자유형(주말포함)	O	O	10~30일 내 이용자선택	신상품(좌석지정옵션)
	③ 횡수차감형(모바일 할인카드)	O	O	10~30회(2~3개월 유효)	신상품(좌석·입석·자유석)
SR	현행정기권	X	O	10일~1개월	제도유지
	① 좌석지정형	O	O	10일~1개월	신상품(19년 상반기 출시)
	② 횡수차감형	O	O	10회(15~30일 유효)	신상품(좌석지정옵션)

좌석지정형·기간선택형·횡수차감형...

KTX 정기권 주말도 이용 가능

다음 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은 9일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횡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국토부·코레일·SR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했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요금을 더 내면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 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가령 서울~천안아산 노선의 경우 정상운임 1만4100원에 좌석지정 비용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입석형 정기권이 22만800원인데 비해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27만2300원으로 5만1500원 비싸다.

'기간 선택형(주말 포함)' 정기권도

도입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조치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 지정 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 지정형 정기권과 같다. SRT는 이미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횡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KTX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횡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가 출시된다. 철도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SRT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좌석을 지정이 가능하다.

이들 서비스는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TX의 경우 기간 선택형 정기권은 8월, 좌석 지정형과 횡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도입된다. SRT의 경우 좌석 지정형은 내년 상반기, 횡수 차감형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채신화 기자

“신남방-신동방정책, 韓·印 ‘공동번영’ 이끈다”

대한상의-인도상의 비즈니스 포럼
문재인 대통령, 양국 기업인들 격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인도상의연합회와 공동으로 9일 인도 뉴델리 타지 디플로매틱 엔클레이브 호텔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진행 현대차 사장, 지동섭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 부회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이성수 한화디펜스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선 라세쉬 사 인도상의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장, 라지브 카를 니코코퍼레이션 회장, 시드하스 버라 엑스프로인디아 회장, 지오스나 수리 바라호텔 회장, 라케시 바탈 인도경제인연합회장, 산딕 자조디아 인도상의연맹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

를 통해 "한국에서 새로운 외교 정책이 발표되고, 한·인도 간에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한 축인 '공동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세쉬 사 인도상의연합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길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첫 방문은 양국의 강한 협력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라며 "2015년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인도의 주요 장관들 중 3분의 2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 회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연계로 인도 산업은 한국과의 협력에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다"며 "한국의 과거 발전 사례와 같이 인도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 인도 해외투자 증가 및 자동차, 전자, 섬유, 건설, 인프라 분야의 제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

심국일뿐만 아니라 빠른 경제 성장과 광대한 시장을 보유한 기회의 땅"이라면서 "대한상의는 양국 기업인들 간의 교류를 늘리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72개사, 130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1~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경제사절단 명단을 9일 공개했다.

사절단에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희 LG 부회장, 정택근 GS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10개 대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에서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우오현 SM 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박해린 옴니시스템 회장 등이 동행한다. 이 밖에도 메쉬코리아, 타임교육, 모담코리아 등 경쟁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다수 참가한다.

사절단은 12일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음식점 점주들 “1분기보다 경기 어려워”

러시아 월드컵 영웅 ‘치킨집’ 특수

올해 2분기 음식점 점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1분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68.98로 1분기 69.45보다 0.47p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현재)의 체감 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 경기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도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2분기 경기지수는 1

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 러시아월드컵으로 '특수'를 맞은 치킨 전문점이 77.26을 기록해 1분기 69.78보다 7.48p나 급상승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77.34), 서양식 음식점업(77.27) 등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김밥 전문점(66.91)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73.77)와 세종특별자치시(72.93)의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62.35)와



월드컵 영웅과 치킨.

/연합뉴스

울산광역시(63.25)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3분기 경기전망은 74.44로 조사돼 2분기보다 5.46p 올랐다. 이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많다는 뜻이다.

비알코올음료점업(84.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81.94), 치킨 전문점(81.13), 외국식 음식점업(84.38) 등 업계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